

초기 그리스도교 형성 과정에 나타난 자신학화: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 전통의 기원과 형성, 1-4세기

곽계일 교수(조지아 센츨러대 교수)

1.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 전통의 기원

초기 그리스도교 세계의 중심은 지중해였다. 그 중심은 안정된 고체가 아니라, 불안정한 액체였다.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흘러나온 지류들이 이 ‘땅 가운데 바다’로 섞이다 다시 다른 대륙의 연안에 부딪히듯이, 사람과 함께 물을 따라 흐르고 섞이며 교차 간섭하는 사상의 끝없는 움직임이야말로 지중해 문명의 생명력이었다.¹ 초기 그리스도교 사상도 이 생명력을 힘입어 형성되어 나갔다. 삼대 대륙에 저마다 자리 잡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기점지는 지중해 물결이 닿는 연안 도시들(혹은, 연안에서 가까운 도시들)이었다. 이 연안 도시‘들’로부터 고유한 지역(그리고 언어) 기반의 그리스도교 전통‘들’이 내륙을 향해 형성되어 나갔다. 동시에 지역 기반의 다양한 전통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교차 간섭하며 “보편 교회”라는 이름 아래 불안정한 혹은 역동적인 일치를 추구했다.² 한 예로, ‘콥틱’ 그리스도교 전통은 로마 시대 제1의 지중해 항구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를 기점으로 나일강을 따라 누메니아와 에티오피아로 교세를 확장해나간 전통이다. 전통의 기점이 된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4세기 그리스도교 세계 전체를 출렁이게 해던,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 소집의 주된 이유였던

1 카르팡티에-르브룅, 《지중해의 역사》 (한길사, 2006), 736—“지중해는 유럽·아프리카·아시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에 둘러싸여 있다… 조물주의 조화로운 창조물에서 분리되어 나온 듯한 불확실한 공간, 지중해에 우리 인간은 정착해 살아왔다. 수많은 현상이 이 ‘액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움직임이 이 바다에 존재한다. 지중해에서는 바로 지금도 인간과 세계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2 1세기 안티오케이아의 주교 이그나티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라는 개념으로 ‘보편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예수께서 계신 곳마다 보편 교회가 있듯이, 지역 주교가 있는 곳마다 지역의 온 성도들도 거기 있기를 바라오.”(Ignatius, Epistle to the Smyrnaeans 8.89-90; ANF 1, 232).

‘호모(이)우시아’ 그리스도론 논쟁의 진원지였다.³

공의회가 결론으로 내놓은 니케아 신경과 함께 ‘보편 교회’ 전통의 경계선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면, 이 전통의 형성 과정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기여한 지분은 상당했다. 사도 베드로의 제자(그리고 복음서의 저자) 마가를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1세기 기원으로 보는 전승은 4세기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이 교회 전통이 자리매김하던 위상에 걸맞아 보인다. 하지만 베드로-마가 기원설을 밝힌 첫 출처가 공교롭게도 4세기 자료라는 점 그리고 그 저자가 에우세비오스라는 점은 이 전승에 대한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요인이 되었다.⁴ 게다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내부 입장과 직접 관련 있는(그리고, 비교적 온전히 보존된) 자료들 가운데 가장 이른 《바나바 서신서》의 저작 시기가 2세기 초라는 견해는 도리어 초기 기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높여주었다.⁵ 불확실성은 ‘알렉산드리아의 최초 그리스도교도들은 누구였을까?’라는 문제의식을 역사신학계에 던져주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력한 연구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유대주의자(혹은, 유대교도)들과 영지주의자들이었다.⁶

이들과 주고받은 교차간섭을 통해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의 ‘보편 교회’ 전통이 기원하고 형성되어 나갔다면, 그 과정은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생산되고 순환되었던 1~3세기 문헌들뿐만 아니라

³ 4세기 팔레스티나 카이사레아의 주교(그리고 교회사가) 에우세비오스는 니케아 공의회가 보편 교회 전체가 참여한 명실상부한 ‘공의회’였음을 강조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석자들의 출신을 밝히고 있다—“기도의 집은 시리아, 시칠리아, 페니키아, 아라비아, 팔레스티나, 이집트, 그리스 테베, 리비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컸다. [페르시아부터 인도까지 이르는 지역을 대표해서] 페르시아 주교도 참석했을 정도였으니, 스키티안 지역에서 참석한 것은 놀랄 일도 아니었다… 심지어 [스페인] 코르도바 지역에서도 한 사람이 참석했는데, 그 명성이 자자해서 공의회에서 유력한 자리를 차지했다.”(Eusebius, *Vita Constantini* 3.7; GCS 7/1, 84).

⁴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2.16. 참고, Birger Pearson, “Earliest Christianity in Egypt”, *The Roots of Egyptian Christianity* (Fortress Press, 1986), 132–159.

⁵ 《바나바 서신서》의 저작 시기와 관련해 제안된 가장 이른 시기는 117년이다(참고, L. W. Barnard, “St. Stephen and Early Alexandrian Christianity”, *Studies in the Apostolic Fathers and their Background* (New York: Schocken, 1966), 57–72; James Paget, *The Epistle of Barnabas: Outlook and Background* (Tübingen: Mohr-Siebeck, 1994), 29–42). 이보다 앞선 1세기 작으로 추정되는 《히브리 복음서》와 《이집트 복음서》는 단편으로만 보존되었기 때문에 초기 기원과 형성 과정을 재구성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참고 자료이다. 다만 《히브리 복음서》는 유대 어휘와 문화를 바탕에 두고 있어서, 팔레스티나의 유대인 그리스도교도를 원독자로 삼은 복음서를 이집트의 유대인 그리스도교를 위해 헬라어로 옮겼다는 연구 의견이 제기되었다(참고, G. Dorival, “Les débuts du christianisme a Alexandrie”, *Alexandrie: une mégapole cosmopolite* (Paris: 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1999), 171–172; Birger Pearson, “Cracking a Conundrum: Christian Origins in Egypt”, *Studia Theologica* 57 (2003), 66).

⁶ 영지주의자(발렌티노스를 비롯해 바실리데스와 이시도레 부자 그리고 카르포크라테스와 에피파네스 부자)를 주목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Walter Bauer, *Orthodoxy and Heresy in Earliest Christianity* (Sigler Press, 1996). 유대주의자를 주목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Colin Robert, *Manuscript Society and Belief in Early Christian Egypt*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이들 외부 공동체를 출처로 삼는 동시대 문헌들에서도 흔적이 발견되어야 타당하다. 특별히,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 사이에 알렉산드리아에 출현한 영지주의 전통(들)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이집트의 지중해 도시를 가장 큰 디아스포라로 일구었던 유대교 전통(들)은 ‘보편 교회’의 기원과 초기 형성 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반드시 소환해야 할 가장 유력한 증인이다.⁷

2. 켈수스의 유대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초기 전통을 비평한 유대교도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문헌은 17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작성된 《참 진리에 관하여》이다. 저자 켈수스의 역사적 신원은 불분명하나, 문헌에서 드러난 그의 사상적 신원은 분명하다. 그는 지중해로 흘러들어온 동·서방의 다양한 사상을 플라톤 전통을 바탕으로 수용하고 나름 종합한 사상가였다.⁸ 지중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초기 그리스도교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비판을 시도한 이 기념비적 논박문에서 켈수스는 지중해 문명인의 보편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유일신론을 표방하는 양대 전통,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한다. 그리고 그 끝에 번번이 유대교의 손을 들어준다. 판정의 기본 근거는 1세기 초 십자가에서 사망한 죄수 예수를 신으로 추종하는 그리스도교에 비하면 그나마 유대교의 역사는 비교할 수 없이 오래되었다는, 다른 아닌 기원의 역사적 유구성 여부였다. 기원론과 관련해서 그가 유대교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 근거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와 모(母) 전통을 변질시켰다는 이유였다.⁹ 이 근거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바탕으로 켈수스는 무명의 유대교도 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대신 비판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아류 혹은 이단이라는 자기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켈수스에게는 그리스도교를 공격할 최후의 무기가 남아 있었고, 그 무기는 유대교의 기원에 대한 폄하였다. (사실 여부를 떠나) 유대교마저 이집트에서 분리되어 나온 아류 전통이라고 깎아내림으로써 켈수스는 (그런 유대

⁷ 헬라파 유대 전통의 대표 사상가 필론은 1세기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의 인구가 5개 거주 구역 중 2개를 차지하고도 다른 구역에까지 넘어가 살만큼 많았다고 증언했다(참고, Philo, Flaccus 55-56; LCL 363, 332-333).

⁸ 참고, Joseph Hoffman, “Introduction” to Celsus on the True Doctrin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30-33.

⁹ Celsus, On the True Doctrine 2; Hoffman, 55-60.

교에서 기원한)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중해 문명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미신 집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¹⁰

켈수스가 전략적으로 끌어들이는 유대교도의 증언은 《참 진리에 관하여》보다 앞서 150년대에 작성된(것으로 추정되는) 문헌을 출처로 삼는다.¹¹ 켈수스와 마찬가지로 유대교도 저자 역시 그리스도교의 기원을 가장 먼저(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젯거리로 삼는다. 종파의 창시자인 예수가 마리아가 로마 군인 판테라와 간음하여 출생한 혼외 자식이라는 출생의 기원 문제는 곧바로 권위의 기원 문제로 직결된다. 저자에 따르면, 마리아는 예수 출생의 비밀을 감추고자 이집트로 숨었고, 예수는 그곳에서 마술을 배운 뒤 유대로 돌아와서는 (기적처럼 보이게 속이는)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했다.¹² 출생과 권위의 기원 문제는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의 비극적 죽음으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저자는 예수의 정체성을 이렇게 단정한다.

분명한 건 예수는 [부활한 신이 아닌] 한낱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조상들의 전통을 계속 믿게 만드는 길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다.¹³

이 유대교도에게 예수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일생 자체가 조상들의 전통을 떠나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이단자였다.¹⁴ 예수에 대한 비평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확대 적용되는 비평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그대들이 조상들의 율법을 떠나 방금 정체를 밝힌 이 사람의 권세 아래 종이 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 어떻게 그대들 존재의 기원이 되

¹⁰ Celsus, *On the True Doctrine* 5; Hoffman, 79–80.

¹¹ 참고, Maren Niehoff, “A Jewish Critique of Christianity from Second-Century Alexandria”,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21.2 (2013), 154–159.

¹² Celsus, *On the True Doctrine* 2; Hoffman, 57 (참고, Origen, *Contra Celsum* 1.32–39).

¹³ Celsus, *On the True Doctrine* 3; Hoffman, 69 (참고, Origen, *Contra Celsum* 2.79).

¹⁴ Celsus, *On the True Doctrine* 2; Hoffman, 60 (참고, Origen, *Contra Celsum* 1.71).

는 뿌리를 경멸할 수 있는가? 우리 율법이 아니라면 그대들 전통의 기원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는가?¹⁵

115년, 로마의 군사적 공백을 틈타 북아프리카 디아스포라에서 봉기한 유대인 반란 운동은 117년 처절한 실패와 함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공동체를 붕괴시켰다. 이 시기에 유포된《바나바 서신서》는 유대교도들의 문자적 해석과 율법준수에서 떠나라는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교 전통의 구별된 정체성을 강조했다.¹⁶ 유대교 전통을 떠나 그리스도교 전통으로 합류하는 이탈자가 늘어나는 2세기 중반의 상황에서 켈수스의 유대교도는 그리스도교도들을 상대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교도들을 상대로 논박문을 썼다.¹⁷ 하지만 그의 글은 동시에 내부자를 단속하여 추가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로 작성된 변증문이기도 했다. 《바나바 서신서》의 ‘가명’ 그리스도교 저자와 더불어 이 ‘무명’ 유대교도 저자는 구약 성경에 공통 뿌리를 둔 알렉산드리아의 양대 유일신론 전통이 2세기 초반기부터 중반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갈라진 과정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다.¹⁸

그렇다면 2세기에 들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뚜렷하게 나타난 분화 현상이 베일에 싸여있는 1세기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 전통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유대교 전통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는 《실바누스의 가르침》이 시사하듯이, 2세기 중반부터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교 전통은 새로운 상대 곧 (발렌티노스와 바실리데스를 기원자로 삼는) 이집트의 영지주의 전통들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¹⁵ Celsus, *On the True Doctrine* 3; Hoffman, 60 (참고, Origen, *Contra Celsum* 2.1-4).

¹⁶ 참고, Pearson, “Cracking a Conundrum: Christian Origins in Egypt”, 66-67; Barnard, “St. Stephen and Early Alexandrian Christianity”, 41-44.

¹⁷ 참고, Niehoff, “A Jewish Critique of Christianity from Second-Century Alexandria”, 171-175.

¹⁸ 참고, Joseph Modrzejewski, *The Jews of Egypt: From Rameses II to Emperor Hadri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214-222; John Barclay, *Jews in the Mediterranean Diaspor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78-81.

3. 오리게네스의 유대인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 전통을 향한 유대교도의 논박은 헬라 사상가 켈수스의 논박 안에 보존되었고, 켈수스의 논박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3세기 그리스도교 사상가 오리게네스(185~254 C.E.)를 통해 유일하게(그리고, 원문의 대략 70% 정도가) 보존되었다.¹⁹ 오리게네스는 헬라인 아버지 레오니데스의 장남으로 185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202년(17세)에 순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문법 교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오리게네스는 학당을 열어 성경을 가르쳤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력한 선생의 집에서 소수 제자가 모여 문증을 이루는 (제도적 학교라기보다는) 학당이 유행했다.²⁰ 영지주의 전통에 속한 학당들도 같은 구역에 그리스도교 전통의 학당들과 공존했지만, 오리게네스는 이들을 ‘이단(heretics)’ 혹은 ‘이설(heterodoxies)’로 규정하며 자신이 속한 그리스도교 전통과 구분했다.²¹ 오리게네스의 학당은 그리스도교도들 사이에 명성이 높아졌고, 그 명성을 들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주교 드미트리오스(127~231 C.E.)는 클레멘스가 팔레스티나로 떠나면서 공식으로 남긴 세례 문답 교육 담당자로 오리게네스를 임명했다. 오리게네스가 자신의 선임자 클레멘스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점(즉,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친분이 없었다는 점)은 이전까지 세례 문답 교육이 교회 내부의 담당 기관이 아닌 외부 학당을 통해 위탁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정황을 암시한다. 주교 드미트리오스는 이집트의 주교 교구를 기존 알렉산드리아 한 곳에서 네 곳으로 늘림으로써 자신은 ‘주교들의 주교’ 혹은 ‘대(大)주교’가 되려 했던 야심 찬 인물이었다. 낮은 교육 배경에 비해 정치적 야망이 높았던 주교와 번번이 갈등을 겪은 끝에 오리게네스는 결국 232년(47세) 알렉산드리아에서 추방되어 팔레스티나 카이사레아로 이주했다. 사도 전통이 자세히 답하지 않고 남겨둔 신학 사상적 질문을 알레고리 성경해석을 바탕으로 탐구해 나가려 한 이 평신도 사상가는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 전통이 이전까지 포괄하던 다양성의 한 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²²

¹⁹ 해당 저작은 오리게네스가 247/8년(62/3세) 팔레스티나 카이사레아에서 작성한 《켈수스 논박》이다. 1~2장은 유대교도의 논박에 대한 재논박을, 3~8장은 켈수스의 논박에 대한 재논박을 담고 있다(참고, Hoffman, “Introduction” to Celsus on the True Doctrine, 33-45).

²⁰ 참고, Ronald Heine, Origen: Scholarship in the Service of the Church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48-50.

²¹ 참고, Heine, Origen, 51-64.

²² 오리게네스는 중기 플라톤 사상을 완성한 암모니오스 사카스(175~242 C.E.)의 제자였고, 후기(혹은, 신) 플라톤 사상을 열어젖힌 플로티노스와 동문이었다. 플로티노스의 제자 포르피리오는 오리게네스가 (플라톤 전통의 사상가들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 전통과 스토아 전통의 사상가들과 폭넓은 교류를 나누었으며,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알레고리 해석법을 유대인의 경전에 사용했다고 평했다(참고,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6.19; LCL 265, 58.7-8).

오리게네스가 지닌 출생 기원의 또 다른 배경은 유대인이었다. 교부 전승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²³ 전승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나 카이사레아에서나 다양한 전통 배경을 지닌 유대인들을 평생 상대했다.²⁴ 20대 후반의 오리게네스는 본격적인 구약 성경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도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성경해석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선생에 대해 회고하면서 오리게네스는 “유대인” 대신 “[학식 있는] 히브리인”이라고 구분 지어 불렀는데, 맥락상 그 이유는 이 선생이 추구한 구약 성경 해석법 때문이었다. 그것은 문자 아래 숨겨진 깊은 의미를 찾으려 한 필론(20 B.C.E.~45 C.E.)의 알레고리 해석법에 가까웠다.²⁵ 오리게네스가 이 헬라파 유대 전통의 대표 사상가를 언급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존칭은 (직역하면) “우리 앞서 있던 사람” 혹은 (의역하면) “우리의 선구자”였다.²⁶ 반면,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기 전에 완성한 《원리론》에서 밝히듯이, 오리게네스는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데 그치는 방식을 “유대인의 방식”으로 규정했다.²⁷ 게다가, 그런 성향의 유대인들을 가리켜 “마음이 강팍하고 무지한 할레파”라고 몰아세웠다.²⁸ 팔레스티나 카이사레아에서 저술한 후속 작품에서도 오리게네스는 (적어도 성경해석을 주제로 다루는 맥락이라면) “유대인”이란 표현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뜻하는 관용식 표현으로 상당히 일관되게 사용했다.²⁹

²³ Hieronymus, Ep. 39.22.

²⁴ 알렉산드리아가 헬라파 유대교 전통의 중심지였다면, 당시 카이사레아는 팔레스티나 랍비 유대교 전통의 중심지였다(참고, Hermann Strack, Introduction to the Talmud and Midrash (Fortress Press, 1996), 10, 240, 250–251).

²⁵ Origen, Letter to Africanus 7; SC 302, 538.1–3(참고, Origen, Philocalia 2.3; SC 302, 244.1–17).

²⁶ 참고, Ilaria Ramelli, “Philo as Origen’s Declared Model”, Studies in Christian–Jewish Relations 7 (2012), 6; Justin Rogers, “Origen in the Likeness of Philo”, Studies in Christian–Jewish Relations 12 (2017), 1–13.

²⁷ Origen, Peri Archon 2.11.2.

²⁸ Origen, Peri Archon 4.2.1.

²⁹ 참고, Paul Blowers, “Origen, the Rabbis, and the Bible,” Origen of Alexandria (University of Notre Dame, 1988), 109; Peter Martens, Origen and Scrip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60.

4.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도들을 대하는 오리게네스의 이중적인 태도와 호칭은 다름 아니라 유대교 전통을 향한 그의 이중적 시선을 드러낸다. 그가 태어나 자랐지만 불미스럽게 떠나게 되었던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교 전통이 (늦어도) 232년까지는 그랬던 것처럼, 그가 마주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 전통 또한 단일체가 아닌 다양성의 연합체였다.³⁰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 전통이 1~3세기 동안 형성해나간 지형에서 오리게네스의 위치는 성경 해석법적 관점에서 보면 교조주의적인 주교 드미트리오스보다 오히려 헬라파 유대교 전통의 필론과 가까웠다.³¹ 하지만 《원리론》에서 오리게네스가 “사도의 가르침” 혹은 “교회의 법칙”이라고 부른, 사도들로부터 전해져온 초기 신앙고백의 관점에서 보면 필론 전통과의 거리는 가깝지만, 결코 좁힐 수 없는 간극이었다.³² 켈수스는 비아냥대는 목소리로 이 간극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꼬집어 밝혔다.

그리스도교도들과 유대교도들 양쪽 모두 터무니없는 신념 하나를 내세우는데, 바로 신이 보낸 구원자가 예언되었고 언젠가 이 땅에 나타나 사람들 사이에 거할 것이라는 신념이다. 다만 그 구원자가 이미 나타났는지 아닌지를 두고 양쪽 의견이 엇갈릴 뿐이다... 나에게 묻는다면 근소한 차이로 유대교도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³³

켈수스의 판단 근거는 유대교의 ‘메시아론’에 대한 긍정이었기보다는, 그 아류인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완강한 부정이었다. 그런 켈수스에게(그리고, 그가 끌어들이는 유대교도들에게) 논박하는 오리게네스의 목소리에는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 전통의 1세기 기원부터 3세기까지 형성 과정에 관한 비밀이 담겨있다.

³⁰ 러시아계 유대인 학자 Victor Tcherikover는 알렉산드리아 유대교 전통을 성경해석 방식(문자 지향적 방식과 알레고리 지향적 방식) 그리고 모세 율법 준수 방식(보수적 방식과 진보적 방식)을 기준으로 4가지 성향의 전통으로 분류했다(참고, Victor Tcherikover, “Decline of the Diaspora in Egypt in the Roman Period”, *Journal of Jewish Studies* 14 (1963), 22-27). 예를 들어서, 필론은 모세 율법에 대한 알레고리 지향적 해석 방식과 더불어 보수적 준수 방식을 지키는 유대교 전통에 속했다.

³¹ 켈수스도 알레고리 해석법을 사용하는 유대교도와 그리스도교도를 “다른 [단순한] 이들에 비해서 학식 있는 자들”이라는 평가로 이들 사이를 연결 지었다. 참고, Celsus, *On the True Doctrine* 5; Hoffman, 80 (Origen, *Contra Celsum* 4.48).

³² 참고, Origen, *Peri Archon* 1.Pref.2; 4.2.2.

³³ Celsus, *On the True Doctrine* 4; Hoffman, 69 (Origen, *Contra Celsum* 3.1).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이 기원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초대 그리스도교도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주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 경륜은 영원한 시간 속에 침묵으로 감추어져 있다가 먼저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 드러났다.³⁴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로부터 받은 최고의 공동 유산인 구약 성경에 대한 구별된 해석을 통해 고유한 전통을 형성해나가기 시작했다. 구별된 해석법 역시 유대교 안에서도 문자적 해석 전통이 아닌 다른 해석법 전통으로부터, 즉 필론이 속했던 전통으로부터 받은 유산이었다. 다만, 수신자로서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교도들은 텍스트 유산과 해석법 유산을 수여자 전통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목적을 위해 향유했는데, 다름 아니라 신약 사도들의 글을 참고삼아 구약 성경에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는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그리스도론은 1~2세기를 거치며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 전통과 그리스도교 전통 사이를 구분하는 간극이 되었다. 그리고 3~4세기에는 알렉산드리아 너머 지중해 세계에 존재하는 다수의 그리스도교 전통을 내부적으로 나누는 간극이 되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의 질문은 초기 그리스도교 전통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이끌고 나간 동인(動因)이었다. 그리고 이 질문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 폐막과 함께 종결되지 않았다.

³⁴ Origen, *Contra Celsum* 2.4; Chadwick, 69.